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본 시험의 답안은 대체로 완성형 단답식, (완성형) 서술식으로 작성된다. 대개의 경우 답안은 제시문에서 용이하게 파악되는 각 문항의 채점 결과는 0~만점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채점자가 문항의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제시된 모범답안과 비교하여 수험생의 답안을 재량껏 평가한다. 즉 작성된 개별 수험생의 답안이 문항의 의도에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진다.>

[문제 1]

- **출제의도:** 다문화 사회에서 정착민(정착집단)과 이주민(이주집단)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제 (60점)
- **모범답안:**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쌍방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0자 이내)
- **기타 가능한 답안**
 -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정착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쌍방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주집단과 토착집단 혹은 이주민과 토착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쌍방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집단과 토착집단 혹은 이주민과 토착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쌍방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2]

- **출제의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AT라는 시험 형식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음. 언론이 현대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 문항은 교과서 『생활과 윤리』 VII-3. <매체와 윤리>에서 '언론의 진실성', '이해의 상충과 언론 윤리의 정립' 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음 (60점)
- **모범답안:** 김철수는 대립되는 양쪽의 주장을 균형 맞춰 보도하는 것이 객관적 언론이라고 생각한 반면, 박영길은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취재를 통해 밝히는 것이 객관적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110자 이내)
- **채점기준:** 질문의 난이도가 매우 평이함으로 대부분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전반적인 내용 요약만 된 경우, 40-45점 / 한쪽의 주장을 잘 드러내면서 요약한 경우, 50점 / 그리고 두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보이는 경우 55-60점을 배정하여 채점하였음

[문제 3]

- **출제의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방조 행위의 처벌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이해력 측정

(3-1) (20점)

- **모범답안:**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50자 이내)
- **채점기준:** 삼단논법의 <예시>에 따라 삼단논법의 형식 논리적 틀을 이해하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답안의 폭은 크지 않음. 우리말에서 전칭명제의 경우 '모든'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모든'이 생략된 것도 모범답안으로 제시함

- 기타 가능한 답안: 가족 등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3-2)

(ㄱ) (25점)

- 모범답안: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의 사전 방지 (15자 이내)

- 채점기준: 자살을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면 정답으로 간주함

- 기타 가능한 답안: 자살의 방지, 자살의 예방

(ㄴ) (25점)

- 모범답안: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당위적인 의무에 속하는지 (35자 이내)

- 채점기준: 자살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정답으로 간주함

- 기타 가능한 답안: 자살방조의 처벌이 국가의 필수적 의무에 속하는지
자살방조를 국가가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 4]

- 출제의도: 부주의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각각의 입장 차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60점)

- 모범답안: 그가 입힌 손해의 크기에 달린 것이지, 그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에 달린 것은 아니다. (100자 이내)

- 채점기준: 문제에서 (갑)의 견해를 "A씨가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는 그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에 달린 것이지, 그의 부주의가 초래한 손해의 크기에 달린 것은 아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을)의 견해는 이에 대비되는 형태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학생들이 정답과 같은 형태로 답하였지만, "손해의 크기에 달린 것이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에도 (갑)과 (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50점 안팎의 점수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의 정도와 손해의 크기를 혼동하거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5]

- 출제의도: 본 문제는 문장 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논술 문제의 약점인 정답과 오답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세 번째 문제는 오류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5-1) (20점)

- 모범답안: (a): (,), (b): (+), (c): (+)

- 채점기준: 다 맞을 때만 20점, 아니면 0점

(5-2) (20점)

○ 모범답안: (1): (ㄴ), (2): (ㄹ), (3): (ㄷ), (4): (ㅂ)

○ 채점기준: 다 맞을 때만 20점, 아니면 0점

(5-3) (40점)

○ 모범답안: 안경을 낀 세 명의 친구가 우연적으로 성적이 좋을 수 있으며 또한 세 사람이 반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세 명의 친구가 안경을 껴다고 해서 안경을 끼면 성적이 좋다고 추론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150자 이내)

○ 채점 기준

- 분량기준 : 70자 미만 10점 감점, 100자 미만 5점 감점

- 다음 문장에 상응하는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각 3점 감점

1) 안경을 낀 세 명의 친구가 우연적으로 성적이 좋을 수 있다.

2) 세 사람이 반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3) 따라서 성적이 좋은 세 명의 친구가 안경을 껴다고 해서 안경을 끼면 성적이 좋다고 추론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 '3)'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장들

따라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인과 관계도 없으며 함의 관계도 없다.

따라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추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세 명의 친구가 안경을 껴다는 것으로(전제)부터 안경을 끼면 성적이 좋다는 것(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문제 6]

○ 출제의도: 본 문제는 인문학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비판할 수 있는 표현력을 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 수준의 현대소설과 현대시를 통해 문학 지문의 분석 능력과 두 작품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6-1의 (1)번, (2)번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상징적 표현을 찾는 문제이므로 지문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6-2번 문제는 (나)의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가)에 제시된 상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경우(행위 비판과 심리 비판)를 찾아서 분량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6-1)

(1) (20점)

○ 모범답안: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35자 이내)

○ 채점기준: 35자 이상 3점 감점

(2) (10점)

○ 모범답안: 벽으로 나누어진 방 (15자 이내)

○ 채점기준: 15자 이상 3점 감점

○ 기타 가능한 답안: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6-2) (40점)

○ 모범답안: (가)의 나와 안은 아저씨의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지 않았고, 아침 일찍 아저씨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도 귀찮게 생각하여 급히 달아나고자 했다.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지 않았고, 또한 타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은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할 수 없다. (200자 이내)

○ **채점기준**

- 분량기준: 100자 이내이면 10점 감점
- 내용기준: 다음 사항 1개 부족에 3점씩 감점
 - 1) 죽음을 사전에 예상했으면서도 미리 막지 않음
 - 2) 죽음을 발견하고서도 자리를 회피함
 - 3)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않음
 - 4)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음

○ **기타 가능한 답안:** (가)의 나와 안은 아저씨의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지 않았고, 아침 일찍 아저씨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도 귀찮게 생각하여 급히 달아나고자 했다.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야 하며, 또한 타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할 수 있다.